

인 사 말 씀

2015. 12. 28. (월) 14:30~14:35

대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 종 룡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1907년 처음 신작로(新作路)가 생긴 이래로,
지난 100년 대구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곳 ‘동성로’에서
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민금융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통합지원센터 개소에 누구보다 힘 써 주신
권영진 대구 시장님과
이동희 市의회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대구시와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도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II. 통합지원센터 개소의 의미

여러분,
서민금융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따로 시간을 내시기 어려운 서민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제도와 절차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정부는 올 한해
정책 서민자금 공급 확대, 맞춤형 상품 출시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인프라’로서
통합지원센터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통합지원센터는 복잡·다기한 서민금융을
수요자에게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핵심적인 전달체계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지원센터에 한 번만 방문하신다면,
생활자금, 창업자금, 신용회복 지원과 함께
고용·복지 연계지원 등
수요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 통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서민금융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광범위한 협업을 통해
일자리 알선, 복지 지원 등을 연계한
종합적 자활·재기 지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대구 시민 여러분들은
서민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더라도,
이 곳에 한 번만 걸음하시면
맞춤형 종합상담을 거쳐 실제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장소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부천 통합지원센터 설립 이후,
이용자분들의 접근성·편의성이 제고되어
자금지원은 30%, 채무조정은 11% 늘어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이 대폭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구 통합지원센터도
삶의 현장에서 '금융애로'라는 가뭄을 겪고 계신
많은 서민분들의 마음을 축축이 적서 줄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Ⅲ. 새해 서민금융 정책방향

여러분,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들이 보다 체감하실 수 있도록
❶ 자금공급, ❷ 채무조정, ❸ 현장 지원센터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부담이
보다 경감될 수 있도록
정책 서민자금을 연간 4.5조원에서 5.7조원 규모로
차질없이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채무조정 시스템'도 전면 개편하여
채무자의 자활·재기를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채무 연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일명)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대출 만기 시점에서
예상치 않게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긴급한 자금소요가 발생하여
채무가 연체될 경우,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연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들을
'미리 찾아서'
대출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기간 연장, 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을 통해
연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3만명의 채무 연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탄력적인 채무조정 여건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서
최대 원금 감면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부담 경감폭을 추가 확대(예; 현행 70%→90%)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의 接點도
전국 범위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과 연계하여,
내년 중 취약계층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총 32개소의 '통합지원센터'를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지자체 청사 등에
종합상담 및 일부 지원이 가능한 '상담·지원센터'도
현재 54개에서 약 100개소까지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다층적인 현장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유관기관, 전통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서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복지와의 연계 강화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IV. 맺음말씀

여러분,

서민금융은 그 어떤 금융영역 보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잘 만들어진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지원이 절실하신 분에게
적시에 도움의 손길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유관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개소된 대구 센터가
서민들의 삶에 활력을 주고
자활·재기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기 자리하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는
여러분과, 이 곳에 걸음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 따뜻하고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